

# '범죄온상' 대포차 양산 주범은 중고차 매매상

## 광주서부경찰 1555대 불법유통 매매상·구입자 등 210명 적발 100대만 회수...1400대는 회수 못해 각종 범죄 도구 악용 우려

#. 시내버스가 흉도(63)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승객을 태우고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편도 2차선 도로를 운전하다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꾼 승용차와 충돌했다. 승용차는 빠른 속도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꿔 진입하면서 충돌한 뒤 별다른 조치도 없이 그대로 '뺑소니'했다. 흉씨는 경찰에 신고, 차량 번호를 수소문했지만 '대포차'인 것으로 드러나 여태껏 운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대포'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500대가 넘는 대포를 운전하다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꾼 승용차와 충돌했다. 승용차는 빠른 속도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꿔 진입하면서 충돌한 뒤 별다른 조치도 없이 그대로 '뺑소니'했다. 흉씨는 경찰에 신고, 차량 번호를 수소문했지만 '대포차'인 것으로 드러나 여태껏 운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8일 자동차 매매상사 명의로 내놓은 판매용 차량 1555대를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자동차매매업자 정모(50)씨 등 47명을 불잡아 조사중이다. 또 이들에게 대포차를 사들여 타고 다닌 유도(41)씨 등 163

명도 적발했다. 대포차의 경우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 교통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정기검사도 받지 않아 사고시 영통한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을 비롯, 북구 유동·서구 매월동 등 광주 전 지역에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법인 명의로 등록된 판매용 차량을 이전 등록 절차 없이 판매하거나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차량을 불법으로 대리 등록시켜주고 대당 30~50만원의 행기는 방식으로 모두 1555대의 대포차를 유통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미리 물색한 노숙자·신용불량자를 대표로 내세운 유통 법인 명의로 자동차 매매상사를 만들고 차량을 넘겨받은 뒤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고 법인을 폐업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낸 대포차 중 100대는 현재 회수됐으나 나머지 1400대가

넘는 차량은 해당 운전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운전자를 찾지 못한 '대포차' 소나타 2 차량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8년간 모두 398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2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있는 실정이다. 일부 대포차 운전자들은 보험사가 명의자와 운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실제 보험을 접수한 뒤 사고처리 등의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자체가 분기마다 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한 현장 단속과 서류 확인을 했지만 '결합기식' 단속에 그치면서 대포차가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차후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대포차 회수와 행정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대포차

'대포'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게 차명으로 개설하는 물건을 말한다. 흔히 대포통장·대포폰·대포차는 '대포 3종 세트'로 불리며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폰은 27만대, 대포통장은 6만개, 대포차는 약 97만대에 달한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미리 물색한 노숙자·신용불량자를 대표로 내세운 유통 법인 명의로 자동차 매매상사를 만들고 차량을 넘겨받은 뒤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고 법인을 폐업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낸 대포차 중 100대는 현재 회수됐으나 나머지 1400대가

넘는 차량은 해당 운전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운전자를 찾지 못한 '대포차' 소나타 2 차량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8년간 모두 398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2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있는 실정이다.

일부 대포차 운전자들은 보험사가 명의자와 운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실제 보험을 접수한 뒤 사고처리 등의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자체가 분기마다 자동차 매매상사에 대한 현장 단속과 서류 확인을 했지만 '결합기식' 단속에 그치면서 대포차가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차후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대포차 회수와 행정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열기자 hal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9분 해질 19시 00분 달돋이 13시 27분 달질 02시 25분

**미세먼지 '보통'**

맑고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다.

광주	맑음	7/24℃
목포	맑음	5/18℃
여수	맑음	9/20℃
나주	맑음	4/24℃
완도	맑음	7/21℃
구례	맑음	3/25℃
강진	맑음	5/21℃
해남	맑음	5/20℃
장흥	맑음	4/23℃
순천	맑음	8/25℃
영광	맑음	5/21℃
진도	맑음	5/18℃
전주	맑음	5/23℃
군산	맑음	5/19℃
남원	맑음	3/24℃
혁신도	맑음	7/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 0.5~1.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북 0.5~1.5m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날씨						
최저/최고	8/23	9/19	9/18	11/17	8/19	9/21



### 대포차 양산과정 보니

- 노숙자 등 대표 내세워 유통법인 매매상 설립
- 명의이전 불가능한 차량 불법 대리등록 돈 쟁겨
- 각종 세금·과태료 체납 지자체 결합기 단속 문제

## 광주 초등 돌봄교실 절반 이상 '과밀'

### 새정치 박홍근 의원 지적

### 전남지역도 350곳 해당

교육부가 초등학교 돌봄교실 추가 설치를 발표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학생 과밀화와 난방시설 미흡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돌봄교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 1만702곳 중 20명 이상을 수용하는 과밀교실은

7158곳으로 66.9%에 달했다.

교육부는 1실당 20명 내외로 학교별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3곳 중 2곳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지역은 돌봄교실 327곳 가운데 58.7%인 192곳이 20명 이상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661곳 중 350곳(53%)이 20명을 넘겼다.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돌봄교실 운영 현황 자료를 통해 34.5%가 전용이 아닌 겸용교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겸용교실일 경우 바닥난방시설 등의 미흡으로 학생들이 추위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도 돌봄교실 327곳 중 전용교실은 205곳에 불과하고 122곳은 수업과 돌봄 기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겸용교실이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추가 설치 요청에 따라 광주는 44실을 늘릴 예정"이라며 "바닥난방 등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통해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열기자 jwpark@kwangju.co.kr

## 연세대 등 일부 대학 수능 전 논술고사 치른다

연세대,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한국항공대 등 일부 대학은 2015학년도 수시 논술고사를 수능 이전에 시행한다.

입시업체인 이투스측과 진학사는 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발표된 2015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일정을 확인한 결과 건국대(자연 9월 27일·인문 9월 28일) 한국항공대(9월 27일), 연세대·동국대(10월 4일), 가톨릭대(의예과 제외·10월 5일) 등이 수능 이전 논술고사를 치른다고 8일 밝혔다.

이외에 고려대(자연 11월 22일·인문 11월 23일), 서강대(11월 16일),

이화여대(11월 23일) 등 대부분 대학은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본다.

대학별 논술고사의 특징을 보면 고려대는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은 필수, 과학은 물리·화학·생명과학 중 하나를 택해서(단 지구환경과학과, 건축학과, 산업경영공학부, 수학교육과는 물리·화학·지구과학 중 택1) 본다. 인문계열은 통합교과형 논술로 시행된다.

연세대는 예년처럼 계열별로 다면 사고형 논술을 시행한다. 자연계열은 수학이 필수, 과학은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한다. /\*연환뉴스

## 국산 참깨, 알고보니 중국·일본산

### '원산지 허위 표시' 섬진강 일대 음식점 14곳 적발

섬진강 일대에서 일본·중국산 참깨를 섬진강 참깨로 속여 판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일본산 참깨 등 유통업자의 유통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 유통업자로부터 일본·중국산 참깨를 사들인 뒤 이를 섬진강 참깨로 속여 판 음식점 14곳이 적발됐다.

이 유통업자는 부산시 영도구 한 수입업체에서 일본·중국산 참깨를 받아 곡성·순천·경남 하동 등 섬진강 일대 참깨 전문 음식점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형기자golee@kwangju.co.kr

음식점 3곳은 일본산 참깨를 보관한 수족관에 국산으로 표기한 거짓 안내문을 붙였으며, 나머지 11곳은 국산 참깨를 진열해 놓고 손님이 참깨탕·장을 주문하면 미리 손질해 놓은 중국산 냉동참깨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들의 총 위반 금액은 1억원에 달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위반업주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섬진강 일대 등 다른 지역에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긴급조치 위반 감옥살이'

### 한화갑, 국가상대 손배소

유선정권에서 단행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했던 한화갑(75) 민주명과학·지구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한다. /\*연환뉴스

뒤늦게 확인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돼 장기간 불법 감금당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작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냈다. /\*연환뉴스

NAVER 광주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 소리큐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핸드폰 통화할때  
강의들을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동구청 전남대 병원  
구도청 앞방로 남광주 농협 소리큐보청기  
전남로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

즉석요리 무한리필

#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 유생장

유·스퀘어점

유생장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10,900  
초등학생.....7,000  
소인(미취학)....4,000  
음료.....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한타, 쥬스)

•프리미엄 최상급 양념  
•풍부한 육즙  
•부드럽고 이완이 쉬운 맛  
•물집튀기스와 지영 허브 육성  
•최소한의 부유해 신선한 재료

즉석요리  
얼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_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